

TIPLONews 한국어본

2022 년 4 월호(K272)

K220317X4

01 남과(南科)연구개발단지의 모광학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건, 검찰은 3 명을 기소하고, 불법수익 대만화폐 1822 만원을 몰수

남과(南科)¹⁾ 연구개발단지에 광학 관련 모 기업에서, 왕(王)씨 성의 전 업무 경리 ²⁾가 전 종업원인 진(陳)씨 및 중국 지구 업무 경리인 주(周)씨와 결탁해,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대만화폐 1822 만원에 상당하는 불법수익을 올렸다. 대만 교두(橋頭)지방검찰은 2022 년 3 월 17 일 3 명을 영업비밀누설죄로 이들을 기소하고 불법수익을 몰수했다.

왕(王)씨가 작성한 내부 장부를 압류하여 분석한 결과, 유명회사 2 개사가 중국 지역에서 해당 대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중국지역과 홍콩 지역의 대학 연구실 및 민간 기업에 유사 제품을 판매하였고 그 불법 수익은 대만화폐 1822 만 5361 원이나 되었고, 그 중 대만화폐 1422 만 6943 원은 이미 교두(橋頭) 지방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주범의 왕(王)씨와 기술부 팀장 진(陳)씨, 영업 경리 주(周)씨가 회사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왕(王)씨와 마찬가지로 본건 피고인의 주(周)씨는 영업비밀법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 진(陳)씨 또한 마찬가지로 영업비밀법의 허락범위를 초과하여 영업비밀을 복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3 명을 기소했다.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규정에 의해 몰수하는 것을 선고하였다. (2022.03)

역주:

- 1) 대만 남부 고웅(高雄)에 있는 연구개발단지
- 2) 대만 회사의 경리(經理)는 한국 회사의 부장 내지 팀장급에 상당

K220315Y1

02 Foxconn 은 「신생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추진, 천여건을 초과하는 자신의 특허를 무상 제공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제조 위탁생산업체인 Foxconn¹⁾은 2022 년 3 월 15 일에 「Foxconn 의 특허에 관한 신생벤처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Foxconn 은 「질, 양 그리고 다용성」이라는 특허²⁾ 전략과 공유 정신을 견지하기 위해 1400 건을 넘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정리하여, 신청하는 신생벤처기업에게 무상으로 실시권을 허락함과 동시에, 무료로 특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Foxconn 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와 오랜 세월을 걸친 특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생벤처기업이 경영 초기에 혁신이나 연구 개발시에 발생하는 리스크와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동시에,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정비 할 수 있도록 협력기로 하였다. 또 Foxconn 은 이 계획을 통해 특허공유 제도를 구축하여 대만 신생 벤처 기업의 후원자가 되어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기 신생벤처기업 육성 계획의 대상은, 설립 2 년 이내의 신생회사이어야 하며, 특히 해당회사의 기술, 제품, 경영 분야가 Foxconn 이 추진하는 혁신 기술이나 미래 산업의 신규 부문과 합치하는 회사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3 년간에 걸쳐 무상으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얻을 수 있다. 본 계획의 제 1 단계로 이미 1400 건 이상의 특허 목록이 발표되었으며 통신 시스템, 터치 패널, 프로세스 개선, 로봇, 인공지능, 블록체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호 제어, 모터, 기계 설비 및 구조 등의 분야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특허정보는 모두 Foxconn 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

역주:

- 1) 중국어명 鴻海科技集團, 영어명 Foxconn Technology Group (Foxconn)
- 2) 본 기사에서 특허는 산업재산권을 지칭하며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한다.

K220325Y3

03 「무림군협전」의 저작권 귀속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법원은 지혜재산법원 및 상사재판소로 해당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얼마전 Heluo¹⁾와 Soft-World 사이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재산권의 분쟁 등 사건에 대해 원판결에 대한 Heluo 의 상소를 기각하고, 지혜재산법원 및 상사재판소에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

Soft-World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2001 년 8 월 27 일 출시된 롤플레잉 게임 「무림군협전」³⁾은 Soft-World 의 전 직원인 서창룡(徐昌隆)이 고용기간중에 업무상 완성한 것이며, 저작재산권은 Soft-World 회사에 귀속한다. 한편 서창룡(徐昌隆)은 2014 년 3 월 7 일에 Heluo 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2015 년 7 월에 발매한 게임 「협객풍운전」⁴⁾은 「무림군협전」을 표절 또는 개작한 것으로, Soft-World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서(徐)씨는 Heluo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Soft-World 가 받은 손해에 대해 연대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Heluo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서(徐)씨는 1994 년 12 월 26 일 Soft-World 와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지만, Soft-World 는 비용을 제어하기 위해 1996 년 1 월 23 일 서(徐)씨가 설립한 Heluo Studio(Heluo 의 전신)와 「컴퓨터게임 위탁제작계약서」를 맺고, Soft-World 는 게임의 저작권 사용료를 선불하였고, 자금, 사무실, 컴퓨터 설비를 Heluo Studio 에 제공하였고, 게다가 Heluo Studio 직원의 노동보험, 건강보험 및 세금신고를 대신 처리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Heluo Studio 는 Soft-World 의 내부 부서가 아니고, 서(徐)씨와 Heluo Studio 의 직원은 모두 Soft-World 의 직원이 아니고, 「무림군협전」은 Heluo Studio 가 창작한 것으로, 서씨가 Soft-World 에 고용되고 있는 기간에 직무상 완성된 것이 아니며 Soft-World 는 위탁제작계약서에 근거하여 판권을 취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혜재산법원 및 상사 재판소는 제 1 심 판결에서 Heluo 및 서(徐)씨에게

대만화폐 2400 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협객풍운전」의 계속적 배포 및 공개송신을 금지하고, 나아가 신문 제 1 면에 판결문을 1 일 게재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법원은 제 2 심에서도 제 1 심의 판결을 유지하자 Heluo 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 심에서는 증인 진술과 서(徐)씨의 노동보험 자료만으로 「무림군협전」이 서씨가 Soft-World 에서 고용기간중에 근무중 완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 나아가 Soft-World 가 「무림군협전」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언제 「협객풍운전」의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 손해배상의 청구, 침해의 배제, 신문광고 게재에 의한 명예회복이 가능한지등등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쪽이든 사실심에서 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에, 본건을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2022.03)

역주:

- 1) 중국어명 河洛遊戲有限公司, 영어명 Heluo Games Co., Ltd. (Heluo)
- 2) 중국어명 智冠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Soft-World International Corporation (Soft-World)
- 3) 중국어명은 무림군협전(武林群俠傳)
- 4) 중국어명은 협객풍운전(俠客風雲傳)